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오주승



한나라당은 요즘 잘 나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라는 '빅3'는 확실히 대선 후보를 하고 있다. 40%를 넘는 정당 지지도는 한자리 숫자로 추락한 열린우리당의 4배 이상이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보궐선거에서 '40 대 0'이라는 압도적 스코어로 여당에 완승했다.

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여당이 해 분열된 상황에서는 더욱 야당의 책임이 크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127명(전체 의석의 42.5%)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막강한 정치 집단이

한나라당, 오만하지 말라

다. 단순한 의석 숫자만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의 동의없이 법안 하나, 인사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전호숙 사태가 이를 증명한다. 국회는 현재소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3개월 가까이 초래하면서도 결국 인준부표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으로부터 '코드 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재정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아직 임명장도 받지 못

했다. 인사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한나라당이 해주는 꼴이다. 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사학법 개정 이후 한나라당은 사실상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켰다. 국회는 그 때부터 1년동안 식물상태다. 한나라당은 거의 모든 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 법안 처리를 미뤘다. 지금 국회에는 사법개혁 관련 법, 국민연금법, 노인수발보육법 개정안 등 법안 3천여개가 쌓여있다. 의원들조차 "계류법안 수가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새롭게 인식해 나가는 과정으로 학문의 진일보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극찬했다. 한나라당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호남 구애' 진정성 없다

한나라당의 호남 구애는 눈물겹다. 당 지도부가 몽땅 호남에 내려온 것이 올해만 4번째다. 지난 8월에는 강재섭 대표가 호남 사람들에 대한 사과도 했다. 광주·전남지역 예산을 여당보다 더 챙기겠다고 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한나라당은 '광주 해방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용갑 의원 징계를 놓고 여정 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못한 채 강재섭 대표가 '대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강 대표는 9일 광주에서도 봉사 활동을 한다. 당 대표의 대리 봉사도 해방구 발언의 파장을 비켜가려는 생각은 너무 오만하거나 지나치게 순진한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지금 달콤한 '집권의 꿈'에 빠져 있다. 그러나 집권의 방식,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 지는 잊은 것 같다.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시설

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시기상조다

광주시의회가 내년부터 유급 보좌관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광주시의회에 결의가 4일 내년부터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억7천640만원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시선이 급지 않은 상황에서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과연 옹당한지 의문이다.

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시의회는 의원들의 정책 및 입법 활동 강화를 유급 보좌관제 도입의 명분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지방의회에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전문위원의 수적 제약으로 입법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 그 수를 늘려 활용하면 된다.

유급 보좌관제는 이미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 지자체 재정제에 압박요인이 될 것은 뻔하다. 이 때문에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한 곳은 서울시의회가 유일하다. 광주시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부산이나 대구 등 타 광역시의회는 재정 부담 때문에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의 오락가락한 행동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는 당초 예산 열악과 정원규정 충돌,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의원 보좌관제를 강력히 반대했다가 태도를 돌변해 보좌관제 관련예산 기워넣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행정부의 '부적절' 판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반면,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57.5%로, 광역시 가운데 꼴찌다. 그렇다고 광주시의회의 직무와 선거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타 지역의회보다 업무량이 많거나 의정활동이 뛰어나다고 볼 수도 없다. 유급 보좌관제를 실시할 하등

최근 시의회의 파행과 소모적인 의정 활동이 정책보좌관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무성의하거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인가.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능력 등 자질부터 키워야 할 것이다.

바닥까지 추락한 사회지도층 신뢰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5일 발표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가 15.8%로 지난해 17.1%에서 더 떨어졌다. 가히 밑바닥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어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안타깝다.

이나 공직자, 경제인 등이 빠짐없이 후퇴하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듯 땅 투기와 논문조작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인사들도 있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냐는 한탄까지 나오겠는가.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싸늘하다. 사회지도층의 24.4%만 청렴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설문대상자의 83.1%는 사회지도층이 병역과 납세 의무 등 국민의 기본적 의무조차 실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90.8%는 지도층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이 '죄질에 비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지도층을 부정과 부패, 특권층 등 부정적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지도층은 반성해야 한다. 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은 부정과 비리, 탈법과 불법을 부추기는 등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지도층이 명예와 권위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대형 부정 및 비리사건 때마다 정치인

경중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도층은 도덕불감증과 사회적 책임 불이행 등에 따른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은 사회에 무슨 희망과 미래가 있을 것인가.

無等鼓

최근 디지털·인터넷의 등장으로 상식처럼 여겨왔던 20 : 80 법칙(파레토 법칙)에 반하는 논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와이어드(Wired)의 편집장인 크리스 앤더슨은 "시장에서 히트하는 20%의 의미가 있으나,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는 80%를 간과하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에 성공한 기업 상당수가 80%의 피리(Tail)에 기반해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롱테일 경제법칙을 주장하고 나선 것.

집의했다. 앤더슨은 57%의 매출이 꼬리에서 발생한다고 했던 처음 주장과 달리 33% 정도의 매출이 꼬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꼬리를 내렸다. 결국 앤더슨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틀렸다고 해서 롱테일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꼬리의 역할이 크고 앞으로 계속 증대된다는데 주목하라"며 한 발 물러섰다.

롱테일 경제



그러면서 그는 아마존의 주주위원회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하기 힘들었던 80%의 책에서 매출의 57%가 나온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 시대 대표적 인터넷 기업의 사례로 롱테일(The Long Tail)론을 웹2.0의 대표적 현상이라고 규정하며 했다. 하지만 롱테일론은 비판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윌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인 리 고메스(Lee Gomes)는 앤더슨이 항상 롱테일의 예로 거론하는 아마존에서 피리가 머리를 앞서는 실제 데이터를 제시하라고 공개

엔더슨 주장의 문제는 실증적 데이터로 입증된 파레토의 법칙에, 추측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며 정면 도전한 점이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 최기근 연구원이 최근 '2007년 9대 트렌드' 보고서를 내면서 내년엔 바로 이 롱테일 경제가 부

각될 것으로 예측해 관심을 끌었다. 정보 사회의 새 경제법칙으로 규정하며 했다. 하지만 롱테일론은 비판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윌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인 리 고메스(Lee Gomes)는 앤더슨이 항상 롱테일의 예로 거론하는 아마존에서 피리가 머리를 앞서는 실제 데이터를 제시하라고 공개

기고

이영모



보유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세금이다.

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태의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세대당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여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3만7천명으로 전국세대의 1.3%에 불과하며, 특히 광주·전남북의 경우 해당자가 2천여명으로 총 세대의 0.1%에 불과하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세대당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여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3만7천명으로 전국세대의 1.3%에 불과하며, 특히 광주·전남북의 경우 해당자가 2천여명으로 총 세대의 0.1%에 불과하다.

종합부동산세 바로알기

은 지방의 경우 발전에 뒤처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보유에 따른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런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2005년부터는 세금부과 기준을 바꿔 시가에 상응하는 세부담이 이뤄지도록 보유세를 개편했다. 보유세는 2005년부터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개편이 있었다.

즉, 지방의 대다수 1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니다. 결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광주·전남지역에서 0.1%를 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한 세안세로 과세하던 것을 종합토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세목을 통합했다.

첫째 토지는 종합토지세, 건물은 재산세로 과세하던 것을 종합토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세목을 통합했다. 둘째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 부담이 되도록 재산세과세표준 산정방법이 바뀐다.

셋째 보유세를 이월화했다. 1차로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전국 소유 부동산을 인별 또는 세대별로 합산해 일정기준 금액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했다.

이런 보유세제 개편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시킴으로써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해 부

무엇보다도 문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낯선 문화이다. 문신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 선한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뭔가 불량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실이다. 타인에게 이런 첫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요인 아닐까.

특히나 이제 곧 방학인데 이 기간동안에는 학교 교사들의 지도를 떠나 가정에만 있게 되므로 가정에서의 각별한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류용규·광주시 남구 서동

중·고생 문신 확산 우려... 가정 지도 필요하다

일부 중·고생과 대학생들이 멋이나 우정 과시를 위해 조그마한 문신을 새겨 넣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낯선 문화이다. 문신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 선한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뭔가 불량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실이다. 타인에게 이런 첫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요인 아닐까.

이들은 자신이 직접 바늘로 피부에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중고생들이 많이 찾는 가짜도 많이 있다. 1회용 문신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조폭을 흉내내 섹스한 모양의 문신을 하다가 보면 문신염으로 인해 피부가 부풀어오르는 켈로이드 현상이 나타나거나 바늘에 의한 세균감염은 물론이고 종양 발생으로 몸이 상할 수도 있다.

특히 조폭을 흉내내 섹스한 모양의 문신을 하다가 보면 문신염으로 인해 피부가 부풀어오르는 켈로이드 현상이 나타나거나 바늘에 의한 세균감염은 물론이고 종양 발생으로 몸이 상할 수도 있다.

특히나 이제 곧 방학인데 이 기간동안에는 학교 교사들의 지도를 떠나 가정에만 있게 되므로 가정에서의 각별한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류용규·광주시 남구 서동

은펜칼럼

김병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근원이 복잡한 한반도 문제가 더욱 긴장이 고조되어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거나 모순이 격화되면 동북아 각 당사국은 물론 전체 국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것이 사실이지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위반한 것도 사실이다.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각국이 서명한 '공동성명' 중의 각 항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북한이 핵 폐기에 들어가면, 동시에 금을 제재 해제도 이루어져야 한다. 북·미, 북·일 간의 관계 정상화 회담도 북한의 핵 폐기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 북한이 실질적 핵폐기에 들어가면 경제 원조, 관계 정상화 회담 및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은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각국은 모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북핵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국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6자회담을 통한 해결에는 의견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입장과 타협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6자회담이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먼

이를 위해 실질적인 정책 수단과 정책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시 정

원칙을 지키며 풀어야

저 한국측 천영우 수석 대표의 말처럼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빠른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6자회담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충분하게 정보를 교환하여, 각국의 의도와 입장에 대하여 충실한 이해와 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것이 회담을 진전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이다. 만약에 필요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타협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6자회담은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흐를 것이다. 둘째, 각국은 어떠한 일방의 사태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예를 들면 6자 회담 회복 후 잠시 교착 상태에 빠져,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하거나, 미국과 일본이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 무단으로 해상 봉쇄를 하는 행동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셋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현

제가 핵 실험 이후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미국은 동시에 평양의 현 체제가 변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정부도 균형잡힌 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핵이나 전략 물자 등을 제외하고 인도적인 지원 물품, 예를 들면, 식량, 의약품 등의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래의 동북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새로운 외교 노력이 활성화되어 사람들이 하여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귀중하게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 실제적인 행동과 유효한 제도를 확보하여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발전을 가져온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지 않겠는가? <서강정보대학교 교수 >2006년 4월 수상사>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호텔 비치 물품 '슬쩍'... 양심을 버려서야

학교를 다니면서 시내 호텔에 객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호텔 객실에 비치된 스킨·밀크 로션이 수시로 사라진다. 값으로 따지면 1봉에 2천~3천원에 불과한 스킨·밀크 로션을 투숙객들이 그대로 들고 나가는 것이다.

다. 얼마전에 LCD모니터 한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투숙객들은 "내가 숙박비를 냈으니까 물건 가져가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공공 비치물품을 가져가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숙박료 인상이라는 피해마저 안겨준다. 스스로 양심에 부끄러운 행동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진보라·목포시 북민동

Table with 2 columns: 光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